

#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시작도 못하고 '삐걱'

(기업형 임대주택)

## 매입사업자 참여 포기·정비계획 변경 등 절차도 제자리

### 5개월째 진척 없어 연내 착공 못할 판...수도권은 순조

비수도권이자 옛 중심상업 지역에서 추진되는 뉴스테이(New-Stay·기업형임대주택)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매입가를 놓고 의견차를 보여오던 매입사업자가 참여를 포기하는 가하면 정비계획 변경 등의 절차도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이어서 사업 개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광주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윤장현 시장과 KB부동산신탁(주) 정순일 대표,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조합 김형완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 11만143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인 KB부동산신탁은 전체

공급분량 3000여 가구 중 조합원 분양분을 뺀 2000여가구를 사들이고, 시는 사업지구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 인가, 건축계획 변경 허가 등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부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기금도 지원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시는 대규모 신규 물량에 대한 미분양 위험이 원천적으로 제거돼 사업이 안정적 바탕에서 속도를 내고, 도심 공동화로 침체된 광주 원도심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때 광주의 중심상업지였던 누문구역은 2006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대형 가구 위주의 개발 구상과 미분양 위험으로 인한 시공사 선정 실패(입찰공고 3차례 모두 유찰)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속에 추진된 누문동 뉴스테이는 기대와는 달리 협약을 체결한 지 다섯달째 됐지만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당초 3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전 단계인 정비계획 변경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합과 임대사업자간의 사전 매매계약과 임대사업자의 임대리츠 설립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계획 또한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최근에는 사업의 핵심주체인 KB부동산신탁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업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혀 협약 자체가 틀어졌고, 관련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안정적인 자금 조성 규모 등 세부 논의에는 의견일치를 봤으나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조합측은 3.3㎡당 730만~740만원 안팎을 제시한 반면, KB부동산신탁측은 710만원 미만을 요구해 결국 가격협상에서 결렬된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알

려졌다. 어떻게든 싸게 매입하려는 임대사업자와 '비례율'을 높이려는 조합측 의견이 충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례율은 투자 대비수익률로 재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고 기업들은 수익성을 중시하면서 관련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더뎠고 있다"며 "새로운 임대사업자 선정과 함께 행정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첫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서 뒤쳐지고 있는 누문동 프로젝트와는 달리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뉴스테이 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4개월 가량 먼저 시작된 인천 청천2구역은 최종 단계인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고, 뒤늦게 시작한 인천 십정2구역도 일반분양 3600가구를 (주)스트레는 앞머리에 8500여 여원에 통매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쏘울 EV, 글로벌 시장서 '씽씽~'

### 기아차, 국산 전기차 첫 1만대 판매 돌파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아차 '쏘울 EV'가 국산 전기차 최초로 글로벌 시장에서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1일 기아차에 따르면 쏘울 EV는 2014년 5월 출시 이후 올해 1월까지 21개월 만에 국내 1580대, 해외 8630대 등 총 1만2110대가 판매됐다.

국산 전기차 중에 1만대 고지를 넘어선 것은 쏘울이 처음이다.

쏘울 EV는 첫해인 2014년 국내외에서 1431대가 판매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8452대로 판매 대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월에는 각 지자체의 전기차 공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내 실적은 없었지만 해외에서 327대가 팔리면서 누적 판매 1만대를 넘어섰다.

판매량도 점차 늘고 있다. 2014년 200대였던 쏘울 EV의 월평균 판매량은 2015년 상반기 400여대로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는 1000대를 넘어섰다.

쏘울 EV는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출시 첫 해인 2014년 해외 판매량이 국내의 두배 정도였으나 이듬해인 2015년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6배 이상 많이 팔렸다.

올해 1월까지 해외에서 판매된 8630대 중 6770대가 유럽에서 소화됐다. 미국에서는 1411대가 판매됐으며 기타 국가에서는 449대가 팔렸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쏘울 EV가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5%로 아우디 A3 e-트론과 테슬라 모델 S 등을 제치고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울 EV는 주행 중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순수 친환경 차량"이라며 "최대 장점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 주행거리가 가장 우수하다는 점이다. 한번 충전으로 148km를 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손톱에 새기는 태극기

삼일절인 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특설 이벤트장에서 3·1절 기념 태극 네일 케어 이벤트가 진행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가전 사면 공기청정기 선물

### 삼성전자 새봄 기획전

삼성전자는 봄을 맞아 1일부터 31일까지 S 골드러시 새봄 새단장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봄의 불청객' 황사에 대비하는 공기청정기 특별행사를 진행하며 봄맞이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고객과 신혼부부를 위해 프리미엄 가전 및 혼수가전 특별혜택을 마련했다.

공기청정기 특별행사는 삼성 SUHD·UHD TV, 자켓 아삭 김치냉장고, 버블샷 애드워시, 무풍에어컨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행사모델에 따라 3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무상 증정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획전 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spr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김해공항 노선

### 금호고속 하루 2회 증편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은 2일부터 광주~김해공항 노선을 직통으로 하루 2회 추가 운행한다. 광주~김해공항 직통 2회, 광주~순천~광양~동광양~김해공항 1회, 순천~광양~동광양~김해공항 1회로 총 4회 변경 운행된다. 광주~김해공항 출발 시간은 오전 4시30분, 9시20분이며, 김해공항~광주 출발은 오전 9시20분, 오후 2시30분으로 2시간 40분이 소요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전남 벤처기업들 中 시장 공략

### 의류·가구·패션 등 80억 규모 쇼핑몰 운영 협약

디케이산업, 루바니 등 지역 600여곳의 벤처기업들이 중국 내륙시장 공략에 나선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회장 박철희)는 중국 성통산업관리유한회사와 의류, 가구, 화장품, 패션잡화 등 80억 규모의 한국 관련 개관 및 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중국 우후시 자산로에 3541㎡ 규모의 한국관 쇼핑몰(K-SHOP)을 개관할 예정이다. 한국관에는 광주전남지역 특산물을 비롯해 중소기업 제품, 문화콘텐츠체험, 한국홍보관 등이 들어선다. 상품기획부터 홍보·마케팅·AS 전 과정을 한국스타일로 진행한다.

박철희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판로개척을 위해 중소 내륙 도시를 10여차례 방문해 최신 트렌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며 "북경·상해 등 포화상태에 이른 대도시를 공략하기보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중소 내륙도시에서 틈새시장을 반드시 열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오는 8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중국 안휘성 우후시 성통국제한국관 쇼핑몰 입점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062-236-008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전, 이란 전력시장 본격 진출

### 차바하르 개발사업 등 MOU 3건 체결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지난 29일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란 에너지부장관과 이란 부통령겸 원자력기구(AEOI)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력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500MW 차바하르(Water and Power Purducer) 개발사업 협력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건설과 현지 제철회사인 PKP와 더불어 발전소 건설부지 확보, 이란 전력공사와의 전력판매 계약 체결, 재원조달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전은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가스 터빈 운전 중 고팅 기술을 가스 발전소

가 많은 이란에서 적용해 그 성과를 실증하고, 이를 포함한 가스터빈 정비패키지 기술을 개발, 해외에 공동 진출하는 데 이란 Turbotec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교와 학교는 이란의 부웨르 훈련센터, 사리프 대학 및 사히드 대학과 원전 인력 양성 및 교류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전은 본사에 이란 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란 현지에서 지사를 설립해 한전이 제시한 4대 협력분야와 이란전력공사 및 이란 에너지부의 요청사항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란 측과 함께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이란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원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고품격 결혼정보회사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박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부처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유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b>남</b>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b>여</b>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엔드 B10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